

특별기고

지금은 지방은행을 육성해야 할 때



박흥석

“정부는 지역자본을 집대성하여 지역 사회 발전에 기여함은 물론 내자(內資) 동원을 위해 지방은행 설치를 추진하겠다.” 이는 1967년 1월 대통령 연두교서(年頭敎書) 내용이다. 이에 따라 지방 대도시에서는 상공회의소를 주축으로 은행 설립을 활발히 추진했다. 이 지역 유일의 지방은행인 광주은행도 1968년 지역민과 지역 상공인들의 손에 의해 탄생한 후 44년간 지역경제의 대동맥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 오고 있다.

아 한다. 더욱이 우리나라 경제에서 중소기업의 비중은 점점 높아지고 있다. 특히 지역경제에서는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중소기업 금융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지역금융을 활성화하지 않고서 지역의 자발적이고 자생적인 성장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최근 충청권 및 강원지역에서는 지방은행 부재로 지역의 자금 역외 유출과 중소기업 대출, 서민가계 지원, 지역개발 사업 등을 추진하면서 기존 대형은행들 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문제가 노출돼 지방은행 설립 움직임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 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지방은행은 중소기업에 대한 의무대출 적용을 받아 지역기업들이 직접적인 혜택을 볼 수 있고, 우리 지역에서 모여진 돈이 영세서민과 자금이 필요한 지역 중소기업들에게 곧바로 수월할 수 있다는 점이다. 즉, 지역자금이 다른 지역으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해 전체적으로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된다. 이와 함께 지방은행이 존립하면서 발생되는 고용 창출, 금융인재 양성, 소득 증대

등도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특히, 은행 영업에서 발생한 이익은 각종 장학사업, 문화산업, 체육사업, 복지사업 등 지역사회 공헌활동을 통해 지역에 환원되면서 지역사회 전반을 풍요롭게 하는 순기능도 담당하고 있다. 충청권과 강원지역 등 타지역의 지방은행 설립 분위기가 고조되는 분위기 속에서 우리 지역은 광주은행이라는 든든한 지방은행을 가지고 있어 여간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광주시 금교 계약시점에 즈음해 우리 지역도 일본이나 미국의 선진국처럼 지방은행에 금교를 맡김으로써 자금의 역외 유출을 방지하고 지역에서 조성된 자금의 지역 내 순순환을 통하여 중소기업 대출, 소상공인 및 가계 지원, 지역개발 사업 추진 및 지역인재 육성 등 각종 부가까지 효과를 극대화해야 할 것이다. 예로 이어나라 금융선진국 일본은 지방은행(전국대리점포수 80%, 예금 61%, 대출 48% 점유) 활성화를 통해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있는 걸 알 수 있다. 일본에는 64개의 지방은행, 42개의 제2 지방은행으로 106개의 지방은행이 있고, 지방은행이 지방경제의 중심축 역할을 담

당하는 세계에서 지방은행이 가장 활발한 국가다. 미국, 독일, 프랑스 등 선진국일수록 지방은행이 잘 발달 되어 있으며 한국 또한 지금은 6개 지방은행에 불과하지만 점차 지방은행이 더욱 중시되고 역할이 증대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다. 대선 이후 또다시 광주은행 민영화 논의가 본격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 어느 때보다도 민영화에 대한 지역민의 관심이 많을 것인데, 광주은행이 명실상부한 지역민의 은행으로 환원되어 더욱더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 지역상공인, 시민단체, 노동계가 다함께 힘을 모아야 할 때다. 즉 자치단체는 광주은행을 금교 은행으로 지정함으로써 향토은행에 대한 지위를 확고히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고 상공인 및 시민단체, 노동계 등에서도 모두 함께 힘을 모아 우리금융지주로부터 분리매각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우리 지역 은행이 많은 이들의 도움으로 발전하고 또 성장하여 지역민들의 자랑스러운 은행이 되길 기대해 본다. 지금은 지방은행을 육성할 때이다. <광주상공회의소 회장>

시설

애플문화전당 콘텐츠 예산 확보 시급하다

오는 2015년 개관을 앞두고 있는 국립 아시아문화전당 콘텐츠 개발사업이 지지부진해 차질이 우려된다.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정부 지원 예산이 턱없이 적게 책정된 탓이다. 민주당 장병완 의원에 따르면, 아시아문화도시추진단은 내년도 문화전당 콘텐츠 및 프로그램 개발사업과 관련 250억 원을 반영해줄 것을 기재부에 요청했으나 70억 원만 반영됐다고 한다. 이는 올해 콘텐츠 및 프로그램 개발 사업비로 지원된 70억 원과 비슷한 수준이다. 추진단이 문화전당 개관을 2년여 앞두고 콘텐츠 및 프로그램개발사업 예산을 요구했으나 총 요구액의 28%만 반영된 것이다. 추진단은 이 예산을 지원받아 내년부터 해외 전시관 작품 섭외 및 의뢰, 문화예술 전시감독 등 전문가 집단구성, 각종 연구사업, 공연·전시프로그램 개발 등 실질적인 개관 준비를 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관련 예산이 급년 수준에 불

과해 사업이 계획대로 이뤄질 지는 미지수다. 특히 문화전당은 민주평화교류원·문화창조원·아시아문화원·아시아예술극장·어린이지식문화원 등 5개 원으로 구성돼 있는 신개념 복합문화시설인데도, 현재 이를 연계하는 콘텐츠나 프로그램은 물론 각 원별 독자 콘텐츠도 전무한 실정이다. 또 콘텐츠 및 프로그램 개발을 전담하는 아시아문화개발원이 운영되고 있지만, 이를 전담할 전문인력 확보는 전혀 안돼 있다. 이런 상태로 개관해야 ‘알맹이 없는 전당’으로 전락할 우려가 크다. 문화전당은 광주의 미래를 결정할 최대 현안으로, 2013년과 2014년 각각 콘텐츠 개발예산에 포함 총 1200억 원대의 국비를 확보해야만 3년 후 개관이 가능하다. 정부는 더 이상 문화전당 개관이 차질을 빚지 않도록 의지를 갖고 적극 지원해야 한다. 광주시와 정치권도 예산 확보에 모든 역량을 결집해야 할 것이다.

법원자 전두환에게 외교관 여권이라니

대법원으로부터 반란수괴죄 등을 선고받고 전직 대통령 자격을 박탈당한 전두환씨가 외교관 대우를 받으며 해외 나들이를 즐겼다고 한다. 이는 정부가 헌정질서를 파괴한 법원자에게 특혜를 준 것으로, 국가와 국민에 대한 모욕이 아닐 수 없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가 23일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감 자료에 따르면 전씨는 퇴임 후 총 4차례에 걸쳐 유급기간 5년의 외교관 여권을 발급받아 동남아, 일본, 중국, 미국 등 7번이나 해외여행을 갔다 온 것으로 드러났다. 외교부는 지난 9월18일에도 전씨에게 외교관 여권을 발급했다고 한다. 현행 여권법 시행령은 전직 대통령에 대한 외교관 여권 발급을 임의조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국제법상 외교관 여권 소지자는 타국 입·출국시 심사 면제 혜택 등 각종 공식·비공식적인 편의를 제공받게 돼 있다. 그러나 전씨는 15년 전 대법원으로부터 내란죄와 반란죄,

내란목적 살인죄 등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박탈당한 자이다. 그는 또 전 재산이 29만 원밖에 없다면서 추징금 1672억 원을 지금까지 납부하지 않고 버티고 있는 파렴치한이다. 출입국관리법은 2000만 원 이상의 벌금 및 추징금을 내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만 출국금지조치를 취하고 있다. 정부가 반국가 범죄자에게 외교관 여권을 내주고, 출국금지 대상자에게 예외를 허용한다면 어느 누가 법을 따르고 지킨 것인가. 더구나 전씨가 지난 6월 육사생도를 사열하는가 하면 지난해는 “5·18 진압이 유언비어”라는 노태우씨의 망언에 이어 전 경호실장 안현태씨의 국립묘지 안장 강행 등 5공(共) 세력의 반역사적 작태가 계속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정부는 일련의 사태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재발 방지에 나서야 한다. 스스로 국가 기강을 뒤흔드는 일은 이제 더 이상 안 된다.

의로 칼럼



김병국

자신의 몸을 살필 줄 아는 사람이 명의

는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어떤 분이 예기한 젊어서는 돈을 벌기 위해 건강을 해치고 나이가 들어서는 건강을 되찾기 위해서 벌어들인 돈을 아끼지 않고 쓰게 된다는 말이 참 안타깝게 다가오는 것 같다. 인간의 질병은 소수의 유전적, 선천적 질병을 제외하고 후천적인 많은 질병들이 생활 속에서 몸 안 계통의 문제나 계통간 상호협조의 문제에 의해서 일어날 수 있다. 사회구조가 복잡해져 가면서 구조가 다양하고 바빠 돌아가는 세상이 됐다. 이에 따른 생활패턴의 변화도 예전과는 많이 달라졌다. 낮과 밤이 바뀌기도 하고, 하루종일 나쁜 자세에 시달리며, 운동 부족이 많아졌다. 건강을 위해서는 수면은 멜라토닌의 분비가 최대화가 되고 수면의 길이가 새벽 1~2시경 정점에 이를 수 있게 11시나 12시 이전에 잠자리에 드는 것이 좋으며, 최소한 6시

간 이상은 수면을 취해야 건강에 이롭다. 생활의 피곤함에 따른 좋지 않은 자세의 유지는 많은 자세성 질병을 야기할 수 있다. 일을 하는 중간중간 짧으나마 휴식을 취하고 가벼운 스트레칭 등으로 몸의 상태를 유지하면 좋겠습니다. 건강은 잘 먹고 운동만 하면 의외로 쉽게 지켜진다는 게 진실이다. 그러나 얼마나 제대로 잘 먹고 있느냐가 중요하다. 흰 쌀밥만 주로 먹고, 패스트푸드나 인스턴트 음식을 선호하며, 채식보다 육식을 주로 하는 식습관이라면 건강에는 매우 좋지 않다. 또 바쁘다는 이유로 하루세끼를 제대로 챙겨 드시는 분들이 점점 줄어가고 있다는 것도 문제다. 식사를 하는 주된 이유는 하루하루 필요한 영양소 섭취를 위해서이다. 식사를 거르거나 부족한 식사 후에 운동으로 피로를 많이 흘리는 것은 밤을 통해서 영양분들이 다 빠져 나가 오히려 건강에 해

롭다. 또 병원에서 처방해주는 약이나 치료자 자신의 건강을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위험하다. 건강은 근본적으로 자신이 관리하고 지켜야 한다. 의사와 치료의사는 고칠 수 있는 질병이 생겼을 때나 급하게 일상 생활을 영위하지 못하게 하는 불편함이 발생한 경우 그때그때 고쳐주는 사물에 불과하다. 약 또한 당시의 염증이 통증 등을 해결해주는 임시방편에 지나지 않는다. 치료약이 몸안에 영양을 채워주는 것이 아니고 생활습관이나 생활 속 스트레스를 해소해주는 전지전능한 수단은 아니기 때문이다. 치과 분야에 있어서도 골고루 좋은 음식을 잘 먹어주고, 저작횟수를 많이 하고, 적절한 방법으로 양치를 잘하며, 충분한 수면·휴식을 취하고, 스트레스를 잘 이겨내 즐겁고 긍정적으로 생활하는 것이 구강 건강을 지키는 기본적인 유지법이다. 올바른 정보를 지혜롭게 이용해 자신의 몸을 관리할 수 있다면, 의사가 아닐지라도 우리 모두 자신을 질병으로부터 지킬 수 있는 진정한 명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전남대치과병원 구강내과 교수>

기고

정보화시대 가장 큰 자산은 창의성



이상배

맺은 프로그램의 아이디어 및 캐스팅, 촬영, 편집 등 제작기법을 형식화한 매뉴얼을 뜻하는데, 우리나라의 ‘코리아 갓 탤런트’ 역시 방송포맷을 수입해 제작한 것이다. 영국은 이 분야 수출 1위의 국가로서 세계 방송포맷 시장을 주도해오고 있는데 이 분야 지난 2009년 14조5000억원 수준으로 그 가운데 영국이 세계시장의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브리튼 갓 탤런트’ 프로그램의 경우는 44개국에 수출되기도 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동남아 국가 등에 방송포맷을 수출하고는 있으나 그 규모는 전체 시장의 1.7% 수준으로 미미한 수준이다. 영국이 이 분야에서 세계 시장을 호령할 수 있는 배경에는 ‘창조 산업’과 깊은 연관을 지니고 있다. 영국은 포디즘 생산체계의 붕괴와 이에 따른 제조업 몰락 이후 서비스

산업을 중심으로 산업 재편을 추진해 오다 노동당 정부시절인 1997년 문화미디어체육부 신설했다. 그 이듬해인 1998년부터 ‘창조 영국(Creative Britain)’이라는 전략을 수립하고 ‘창의성’을 성장 동력으로 하는 창조산업을 핵심 전략산업으로 육성해 오고 있다. 영국은 창조산업을 ‘개인의 창조성, 기술 그리고 재능 등을 이용해 지적재산권을 설정하고 활용함으로써 부와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닌 산업’으로 정의하고 이를 통해 전통적 문화산업과 제조, 미디어 등 타산업 분야와의 접목을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전략을 기반으로 놀라운 결과를 내고 있다.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해리포터시리즈, 오페라 유령이나 레미제라블 등 뮤지컬, 방송 콘텐츠 등 영상산업은 전략산업으로 육

성되고 있으며, 전체 영국의 창조산업이 국민소득에 차지하는 비중은 7%나 되며 이 분야에 무려 200만명 이상이 종사하고 있다고 한다. 영국은 산업의 구조 개편으로 제조업 경쟁력 상실과 그에 따른 높은 실업률 등 문제점을 타개하기 위해 일찍부터 ‘창의성’에 주목하고 정부의 지속적인 숨은 노력이 있었으며 그와 함께 창의성을 존중하는 문화도 큰 역할을 했다. 방송포맷 시장의 경우에도 프로그램의 성공 여부를 상업적 성공보다는 오로지 창의성을 우선에 두는데서 그 근본 원인을 찾을 수 있다고 한다. 영국의 창조산업의 성공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우리는 이미 IT 등 최고 수준의 정보화 능력과 높은 문화적 잠재력을 지니고 있어 여기에 창의성이 더해진다면 무한한 가능성 지닌 새로운 산업으로 키울 수 있다고 확신한다. 정보화시대의 가장 중요한 자산인 ‘창의성’을 주목하여야 한다. 이것은 새로운 기회이며 우리의 가장 큰 경쟁력이다. <광주시 도시철도건설본부 기술담당관>

결혼 이주여성, 시댁식구에게 잦은 성희롱 피해 ‘충격’

우리나라 농촌에는 동남아 등지에서 결혼해서 이주한 다문화 가정이 아주 많다. 앞으로 늘면 늘었지 줄어들지는 않을 것이다. 농촌 총각들이 결혼을 못해서 안타까워하던 차에 이력만리 우리나라에까지 찾아와 결혼해서 살고, 아기를 낳아 국가 존립의 토대를 마련해 주고, 농민들이 자꾸만 농촌을 등지고 떠나 점점 아가 울음소리가 사라져가는 농촌을 지켜주니 고마운 분들의애를 느낄 수 있다. 하지만 이런 분들에게 우리는 과연 얼마나 많은 배려를 하고 있을까 자문자답해보

지 않을 수 없다. 정신질환 남편에게 맞아서 죽거나, 가정 파탄 때문에 본국으로 돌아가는 일, 갖은 폭행과 시집살이 같은 걸 견디지 못해 결국 보호소에 위탁해 있는 사람 등 이분들은 한국 말에 익숙하지 않고 한국의 문화와 관습을 잘 몰라서 겪는 고충도 크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보복을 당할까봐 두려워 알게 모르게 가족 친지들로부터 성추행을 당하는 사례도 적잖고 하니 너무나 충격적이고 안타까운 일이다. 시아버지가 그러는 경우, 시동생이나 손

위의 시숙, 시누이 남편, 혹은 친가 쪽 다른 남성들로부터 그런 일을 당하지만 유교적 관습이 강한 우리나라에서 그런 사실을 털어놓다가는 가족관계가 깨져버려, 최악의 경우 당장 쫓겨나 본국으로 돌아갈지도 모르는 두려움 때문에 쉬쉬하며 참는 것이다. 그런 사실을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차마 털어놓지 못하는 현실이다. 이런 일이 알려진 것 말고 우리가 모르는 사이 전국에서 얼마나 많이 저질러지고 있는지 모른다. 우리나라 농촌에는 베트남, 중국, 필리핀, 캄보디아, 우크라이나 등 동남아 각국에서 결혼해서 온 이주여성들이 많은데 5명 중 1명이 시댁식구에게 성희롱을 당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는 국가

연구기관인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조사한 내용이다. 시댁 식구 중 누군가로부터 성적 인 모멸감이나 수치심을 유발하는 말을 들었거나, 시댁식구로부터 성추행을 당했거나, 혹은 시댁식구 중 누군가 강간하려고 했다는 것이다. 현재 다문화 가정 이주민들에게는 여러 가지 국가적 배려와 지원, 교육이 시행되고 있다. 앞으로는 언어나 관습, 일반 사회생활 부분뿐만 아니라 다문화 가정 주부들에게 성추행 방지와 회피 방법, 신고요령 같은결혼 주의 깊게 가르칠 필요가 있다. 특히 다문화 가정을 일구는 가정의 남편과 시댁 식구들에게 이런 부분에 대한 교육을 반드시 병행해야 할 것이다. ▲노정숙·광주시 서구 농성동

無等鼓

최고 출판가에 ‘마흔...’ 제독 열풍이 불고 있다. 올 들어서만 무려 42종의 ‘마흔...’ 관련 서적이 쏟아지고 있다. ‘마흔에 읽는 손자병법’을 필두로 신진권 교수의 ‘마흔 논어를 읽어야 할 시간’이 나왔다. 이 책들은 각각 20만부, 15만부가 팔려나가며 베스트셀러에 오르자 출판계에는 ‘마흔 살’과 고전을 융합하는 것이 새로운 트렌드가 됐다. 이어서 ‘마흔 셋, 목자를 만나다’, ‘마흔 인문학을 만나라’, ‘마흔살의 정리법’등 나이 마흔에 읽어야 할 책들이 갑자기 많아졌다. 왜 이처럼 마흔 고전 읽기 붐이 일어났을까? 출판계에서는 ‘2차 베이비 부머’로 불리는 30대 후반~40대 초중반이 가장 단단한 독자층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1980년대 후반, 90년대 초반 대학에 다녔을 이 세대들은 직장 다닐 때 고민이나 현실의 문제에 봉착했을 때 책을 사보는 콘텐츠 세대로 분류하고 있다. 서점가에서는 40대 독자 비율을 전체

25% 이상으로 보고 있어 가장 책을 많이 사보는 20대, 30대 독자에 밀리지 않는다는 것이다. 출판계에서는 이같은 ‘마흔 살의 고전 읽기 트렌드’가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공자(孔子)는 일찍이<논어(論語)> ‘위정(爲政)’편에서 “나는 열 다섯에 학문에 뜻을 두었고, 서른 살에 성숙하며, 마흔 살에 미혹되지 않았고, 쉰 살에 천명을 알았으며, 예순 살에 귀가 순했고, 일흔 살에 마음이 하고자 하는 바를 따랐지만 법도에 넘지 않았다.”고 했다. 공자는 40세를 불혹(不惑) 즉 어떤 일에도 흔들림이 없는 미혹의 나이라고 했다. 세상일에 정신을 빼앗겨 갈팡질팡하거나 판단을 흐리는 일이 없게 됐음을 뜻한다. 진보적 색채가 강하지만 현실적 감각도 뚜렷한 40대. 조용한 사색에 잠겨 젊은 시절 지녔던 치열함을 넘어 주변을 보살피는 중년에 필요한 지혜가 무엇일까. 이 가을에 이제 나를 한번쯤 돌아볼 때인 나이 마흔이다. <최재호 경제부장 lion@kwangju.co.kr>

‘마흔...’ 열풍



Table with 2 columns: 光州日報 and The Kwangju Ilbo. Includes contact info, subscription rates, and advertising rates.